



김 명 인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실린 김영혜씨의 평문 ‘여성문제의 소설적 형상화’는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글이다. 여성평론가가 여성해방의 입장에서 여성작가들의 문제작들에 대해 비평을 가하려고 시도한 글이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이 질과 양 모두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문학작품과 그 비평이 갖는 계몽적 역할이 여성해방사상과 여성운동의 대중화·보편화에 주는 기여는 적지 않은 것이다.

김영혜씨는 이 글에서 윤정모의 장편 〈고삐〉, 이정자의 연작작품집 〈절반의 실패〉, 김향숙의 중·단편집 〈수레바퀴속에서〉 그리고 홍희담의 중편 〈이제금 저 달이〉에 대해서 비

의 〈이제금 저 달이〉는 싸움을 통해 스스로 의식화되어가는 어머니의 형상화가 지나치게 성급함을 지적한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은 김영혜씨의 주관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왕의 리얼리즘적 비평안에 여성운동적 문제의식을 약간 덧붙인 정도로 보인다. 즉 ‘여성해방의 입장’이란 것이 중심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비평적 시각 중의 하나로 추가된 셈이 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선 김영

인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것은 ‘추상적인 여성일반의 해방론’이 갖는 비계급성, 즉 지배·준지배계급여성의 참여·평등주의적 입장과도 다르다. 계급적 기초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다. 인류의 계급적 해방이 전제되지 않는 여성해방은 그 역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시대의 진정한 여성문학은 ‘노동자계급 여성의 시각으로 뒷받침되는 여성해방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문학’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 규정을 따를 때에만 여성문학은 노동문학보다도 더 원대한 인류의 문학적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문학은, 또 그에 대한 비평적 접근은 기존문학의 한 추가물이 아니

새로운 여성문학 향한 디딤돌

김영혜씨 여성문제 소설 비평을 보고

평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문제를 전체 민족·민중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윤정모의 〈고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의존하는 여성문제를 ‘외세의 탓’으로만 돌리고 그림으로써 오히려 여성문제의 해결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이정자의 〈절반의 실패〉에 대해서는 거꾸로 여성문제를 지나치게 남녀 대립구조 속에서 파악하여 계급문제·민족문제와의 관련을 놓쳤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김향숙의 〈수레바퀴속에서〉에 실린 작품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치밀한 심리묘사가 하나의 편향으로까지 발전하여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을 심리학적 대상으로 취급하게 되기에 이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홍희담

혜씨 자신도 “여성문학론 자체의 방법론과 내용이 아직 채 성숙되지 못했다”고 변명조로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

무릇 여성문학은 무엇이며 여성해방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여성문학이 단순히 여성이 쓴 문학(여류문학), 여성독자가 많이 읽는 문학 또는 여성문제를 다룬 문학이 아님은 물론이다. 여성문제를 다루되 가부장제적 시각에서 다룬 문학작품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여성문학은 결론부터 말하면 ‘여성해방의 입장에서 쓰여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해방의 입장이란 여성을 억압·착취해 온 인류사, 억압·착취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 분단과 제국주의 지배로 말미암아 여성억압이 중층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

라 그 전체를 싸안는 새로운 문학이며, 새로운 비평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그 내용과 방법론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전망이 전혀 동떨어진 어떤 곳에서 불췌 솟아오르는 것은 아닌 성실다. 그것은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과정에서 분명히 그 해답이 주어지리라 믿는다. 이미 리얼리즘의 역사는 자본주의시대 이래로 문학을 통해 인류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임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김영혜씨의 이 글이 새로운 전망으로서의 여성문학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논의를 향한 하나의 디딤돌로 받아들여지기 바란다. 〈문학평론가〉